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7. 1.(화) 15:30

‘고려인 차세대 정착지원 어떻게’..재외동포청, 정책 발굴에 ‘온힘’

- 제과제빵 직업훈련 및 ‘미래이음’ 교육 프로그램 현장 찾아가 격려 및 의견청취
- 7월11일 호서대서 아시아발전재단과 ‘고려인 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’도 개최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부모와 함께 중도입국한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진로·취업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다.
- 6월 30일 직업훈련 2기 과정(6주간 진행)에 참가한 고려인 청년 15명을 격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고려인 청소년 대상 제과제빵 직업훈련 입교식에는 황유경 국내동포TF 팀장이 참석했다.
 - 입교식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아시아발전재단(상임이사 조남철) 주관으로 열렸다.
 - 이 재단은 지난 1월에도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40여일 간 우리나라 유명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.
 - 황 팀장은 입교식에서 “고려인 차세대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정책 대화, 지자체 및 동포단체 보조금 사업,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등을 하고 있다” 고 소개했다.

□ 한편, 동포청은 11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열리는 ‘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’에도 이기성 정책국장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.

○ 아시아발전재단 주최로 ‘고려인 청소년과 학교밖 교육’, ‘고려인 청소년과 진로교육 멘토링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동 포럼에는 손은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장, 소학섭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 이사장, 김기영 한양대 극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, 전득안 광주 고려인국제학교 이사장, 김동원 양산 고려인지원센터장, 채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(KGN)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.

□ 동포청은 앞서 4월 12일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(1860~1920년) 선생을 기리는 장학금 수여식에도 이기성 국장이 축사를 통해 고려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달라며 응원했다.

○ 당시 이 국장은 “고려인 차세대들이 한국에 정착해 성공스토리를 쓰고,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버팀목이 되겠다”고 약속하기도 했다.

○ 또 이 국장은 지난 3월말 ‘미래이음’(FUTURE LINK)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 “여러분의 도전에 재외동포청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연 6회 6주간 진행되는 ‘미래이음’ 교육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고려인의 역사, 재테크 및 자산 관리, 한국 예절 등의

교육을 받는다.

- 동포청은 또한,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KGN과 함께 음식 배식 및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 고려인 사회가 이 땅의 국민과 하나되는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	책임자	팀장	황유경	032-585-3280
		담당자	주무관	임새별	032-585-3284